

農產物價格變動의 原因에 관한 研究

白子勳 · 姜志勇

On Study of Cause in Agricultural Price Fluctuations

Ja-hoon Baik · Ji-yong Kang

Summary

The cultivating conditions of self-sufficiency were dominated in our nation and a policy for increasing out-put was a serious task.

But th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ion becomes more important because of the decrease in farming population and expanding circulation of out-put in tune with the developing of national economy.

By the increasing ratio of commercial farming the change of agricultural product price is just confronted with rise and fall of agricultural income and the most consumers are purchasing their foods via markets.

Therefore the rise and fall of agricultural price that makes the domestic expenditure well and badly off is studied by the bureau of economic promotion.

So this study is emphasized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ice.

With view point of function and peculiar character of that price, which had been unfavorable to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in formation of agricultural price when that price was unstable at past time.

序 論

過去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農產物價格, 特히 米麥을 中心으로 하는 穀價는 언제나 物價政策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하여왔다. 物價政策에 있어서 農產物價格이 重視되어 온 理由로서는 農產物은 國民의 食生活에 하루라도 빠질 수 없는 糧食이 되기 때문에 農產物價格의 上昇은 都市消費者는 勿論이려니와 食糧自給이 不可能한 零細農家의 食生活을 크게 威脅하고 나아가서 生計費의 上昇을 通하여 인플레이션(Inflation) 및 社會問題로 擴大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農業은 우리나라 產業構造上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農產物價格政策

은 農村經濟의 振興과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重要한 影響을 끼쳐 왔으며, 또한 農產物價格의 지나친 下落은 農家所得을 減少시키고, 農民의 生産意慾을 低下 및 農業生産의 增加를 阻害할 뿐 아니라 農家購買力을 低下 시킴으로써 工產品의 生産萎縮으로까지 波及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農產物의 保管·運搬·管理 등을 爲한 諸施設이 充分하게 完備되지 않았으므로 季節的인 價格變動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過去の 農產物價格이 不安定하여 生産者 農民이나 消費者 都市民에게 다같이 不利하였던 農產物價格形成의 原因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앞으로의 農產物價格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려는 데 그 目的을 두었다.

2. 農産物價格의 機能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農産物의 價格實現은 市場에서 이루어진다. 즉 農産物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이 均衡되는 點에서 決定되며, 또한 農産物市場에서 單位農産物이 交換되는 화폐수량으로 表現된다.

우선 農産物價格을 論하기 前에 念頭에 두어야 할 事實은 價格이 어떠한 機能을 가졌으며, 그것이 미치는 經濟的인 効果는 무엇인가를 밝혀 둘 必要가 있다.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말한 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써 어떤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느냐를 分明히 하지 않고서 는 그 機能을 살리는 것이 主要手段으로 되어 있는 價格政策을 論議할 수 없을 줄안다.”

價格機能의 分類는 價格效果의 어느 側面에 重点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다음 세 가지 機能을 遂行한다. 즉, 資源配分·所得配分 및 資本形成의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세계의 資本形成의 機能은 資源配分과 所得配分の 兩機能에서 派生되는 二次的 機能이라고 볼 수 있으나 經濟成長過程에서의 그 重要性에 비추어 하나의 獨立的 機能으로 取扱함이 타당하다. 農産物 價格에 관한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研究는 生産과 消費에 관련된 資本配分の 役割에만 重点을 두고 所得配分과 資本形成의 機能은 輕視한 傾向이 없지 않았다.

1) 資源配分の 機能(Resource allocation role)

農産物價格의 變動은 農業內部에 있어서 特定生産物의 產出水準을 조절할 뿐 아니라, 農·工産物間의 交易條件의 變動을 통하여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間의 資源移動을 誘發한다. 즉, 農産物 價格水準의 相對的 變化는 既存生産財의 個別農産物間의 再配分을 誘發함으로써 特定農産物의 產出量을 增減시키고, 동시에 生産財의 全般投入水準을 變動케 함으로써 全体農産物의 生産量을 變化케 한다. 價格變動에 對한 產出量의 變動은 生産의 價格彈力性으로 測定되는 바 이것은 動態經濟의 가장 重要한 側面인 價格條件의 變動에 對한 農業生産者의 適應能力과 意慾을 말

해주는 標이다. 農業生産의 큰 部分의 自家消費에 充당되는 半傳統的 農業에서 農民이 生産資源을 配分함에 있어서 市場條件의 變化에 어느정도 反應하는지의 여부는 자주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農民들의 價格條件의 變化에 適應하는 速度는 그 나라의 農業發展段階나 地域的 差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價格이 生産資源을 調節한 다른 것은 價格의 騰落에 따라서 生産資源이 增減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을 生産要素의 投入面에서 본다면 生産資源의 調節과 配分을 통하여 生産을 調節한다고도 表現할 수 있다. 즉 價格은 資源을 再配分하고 生産을 增減調節하는 經濟機能을 發揮하고 있는 것이다.

2) 所得配分の 機能(income allocation role)

所得配分の 機能이란 수량의 다과를 논의로 할 때 여러가지 生産要素의 各기 所得이 生産에 있어서 기여하고서 지불받는 代價의 크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所得을 노동물에 의하여 地主의 所得은 土地使用料(地代)의 高低에 의하여 農民의 所得은 그 가 주로 생산한 農産物 價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받게되는 所得은 반드시 自由競爭市場에서 결정되는 價格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自動적으로 運營되는 價格機構를 통해서 여러 生産要素가 획득하는 所得에 대한 불만은 價格機構에 대한 統制로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工業製品의 生産者들은 그들의 製品에 대한 좋은 價格을 얻기 위하여 企業을 合同 또는 聯合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그와 비슷한 이유에서 勞動組合을 조직함에 이르렀다. 농민들도 또한 그들의 所得을 보호하기 위하여 協同組合을 形成함에 이르렀으나, 그것만으로는 不充分하여 現在는 政府의 農産品에 대한 價格維持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世界各國의 共通의 事정이다.

모든 財貨와 用役에는 반드시 그 價格이 形成되며 만약에 어느 財貨의 價格이 상승되면 生産자는 이의 生産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예상하게 되고 生産諸資源을 보다 더 需要함으로서 特定資源의 가격을 상승시

1) 朴東昂, 農業經濟, 1974, p. 114.

킨다. 이때에는 資源의 이동이 야기되고 여러 생산 영역에 대한 報酬가 서로 상이하여짐으로서 財貨와 用役의 分配構造도 또한 서로 틀리기 마련이다.

農產物價格의 所得分配效果를 論함에 있어서 念頭에 두어야 할 點은 農產物收穫期에는 自家消費까지도 販賣하고 端境期에는 一般都市 消費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食料品을 現金으로 購入해야 하는 영세 노동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農產物을 購入하는 한 價格變動의 效果는 都市低所得層의 경우와 同一하다고 보아야 한다.

3) 資本形成의 機能 (Capital formation role)

所得分配 效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農產物價格의 變動은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의 資本形成에 있어서 相反된 效果를 가진다. 즉, 農產物價格의 相對的 上昇은 農業部門에 있어서 投資를 자극하는데 投資增大 效果는 두가지 側面에서 이를 고찰할 수가 있다.

첫째는 가령 農產物價格의 相對的 上昇은 農産物의 市場價値를 높임으로서 投資收益率을 높이게 된다. 그리하여 投資收益率의 상승은 農産物 투자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투자증대에 의한 생산물 증가분이 전부 시장화된다면 粗收益增大는 價格上昇에 정비례하지만 小農의 경우는 생산물 증가분의 일부만 상품화되고 나머지는 자가 소비에 흡수됨으로서 投資粗收益은 大農의 경우에 비하여 적을 수 있다는 差異가 存立되는 것이기는 하나 投資收益率의 增大를 통한 農業資本形成의 機能 側面을 充分히 存立認定케 된다.

둘째는 農産物 가격 상승이 소득효과를 통하여 농업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소득증대는 農村貯蓄의 增大를 유도할 것이며 同時에 金融上의 危險負擔力을 높여줌으로서 투자자원의 확보를 전보다 손쉽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물론 農産物價格上昇에 따른 投資增大效果에 있어서 생산물의 적은 부분만을 상품화하는 農家は 現金收入도 그에 비례하여 적음에 따라 貯蓄餘力이 적게 되기는 하지만 價格의 資本形成의 機能의 性格을 지니게 된다고 함을 알 수 있게 된다.²⁾

3. 農產物價格의 特殊性

農產物價格도 一般의인 市場價格의 形成過程과 똑같이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價格은 長期的인 變動과 短期的인 變動으로 나누어짐은 勿論이다.

그런데 農產物價格이 다른財貨와 달리 價格의 特殊性을 논의하게 되는 것은 價格을 形成하는 要因인 需要와 供給過程에서 一般財貨와 다른 特殊性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特殊性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長期的이고 一般의인 特殊性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需要와 供給面의 特殊性을 보기로 한다.

1) 一般의인 特殊性

資本主義가 發展하는 過程에서 흔히 景氣의 變動을 겪게 되며 景氣變動은 好況과 不況이 一定한 幅을 두고 일어나게 된다. 一般의으로 農產物價格이 工産物價格에 比하여 價格이 變動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이러한 景氣의 變動이 부딪치게 되면 特히 好況期에는 그 價格이 騰貴하게는 되지만 나타나는 現象은 工産物價格에 比하여 빨리 나타나지 못한다. 그것은 農産物이 消費의 彈力性이 적기 때문에 景氣가 多少 好況을 타더라도 그 需要量에는 變化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景氣가 차차 상승하여 가면 경기상승에 의한 物價의 騰貴를 가져오고 이것이 農産物價格의 騰貴를 誘發하게 된다. 不況期에 있어서는 農産物價格이 下落하게 되는데 이것은 景氣가 沈滯하게 되면 企業의 操業短縮과 失業者의 增大所得의 減少를 가져 오고 食糧도 米穀으로부터 雜穀으로 需要量의 轉換을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서는 需要量의 減少까지 일 으킨다. 이에 따라 供給의 과잉과 수요의 減退를 가져오게 되며 價格은 下落하게 된다. 그러나 工産品의 境遇에는 工業資本家들이 Trust, Kartell, Konzern들의 組織을 통해서 시장을 獨占하고 불황기에도 需要와 供給을 조절하여 어느 정도 價格을 自意에 의하여 操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에서 缺狀價格差(Schere)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 Schere로 因하여 農民은 不等價交換을 強要當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Schere로 인

2) 朱奉圭, 農業經濟理論, 1980, p. 120.

4 논문집

하여 農産物價格이 下落할 때 農民들이 왜 生産과 供給을 需要에 適應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첫째, 農民들은 價格이 下落하였다고 해서 生産을 縮少하거나 中止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農産物은 供給의 彈力性이 적기 때문에 마옵대로 供給을 조절하기 힘든다는 데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셋째, 農産物의 過少供給은 大体로 供給으로 생기는 價格騰貴率은 공급과잉으로 생기는 下落率보다 더욱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農産物價格에는 Corn-hog cycle³⁾이라는 特殊한 價格形態가 있으며 이것은 거미줄 定理(Cobweb Theorem)⁴⁾의 代表的인 形態가 된다. 그리고 거미줄 定理에는 다음과 같은 세 경우가 있는데, 첫째, 供給曲線의 彈力性과 需要曲線의 彈力性이 같은 경우 이 때는 繼續的 變動(Continuous fluctuation) 둘째, 供給曲線의 彈力性이 需要曲線의 彈力性보다

클 경우에는 發散的 變動(Divergent fluctuation), 셋째, 供給曲線의 彈力性이 需要曲線의 彈力性보다 작을 경우에는 收斂的 變動(Convergent fluctuation)이 있다(그림 1, 2, 3).

2) 供給의 特殊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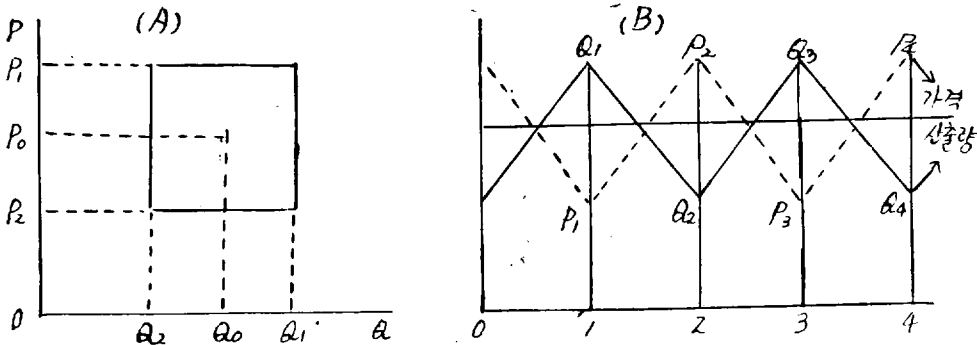
그러면 다음으로 農産物의 價格形成要因을 좀더 仔細히 보기 爲하여 供給 側面에서의 特殊性을 밝혀 보기로 한다.

첫째, 農産生産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生産要素는 土地이다.

둘째, 農産物은 天候·氣溫·溫度 等 自然諸條件에 의하여 價格의 變動을 가져온다.

셋째, 農産物의 主宗을 食穀이며, 食穀生産의 增減如何가 곧 農産物價格의 變動을 가져오게 되는데 農産物中에서도 食糧은 供給의 彈力性이 적다.

넷째, 農業은 다른 産業에 比하여 그 經營規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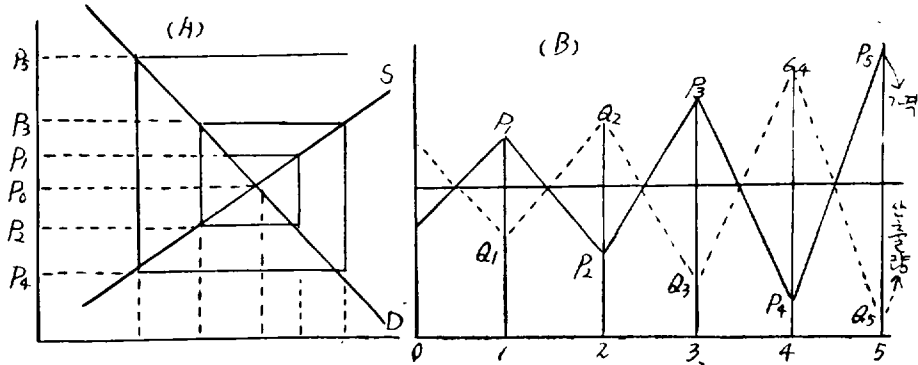


<圖 1.> 繼續的 變動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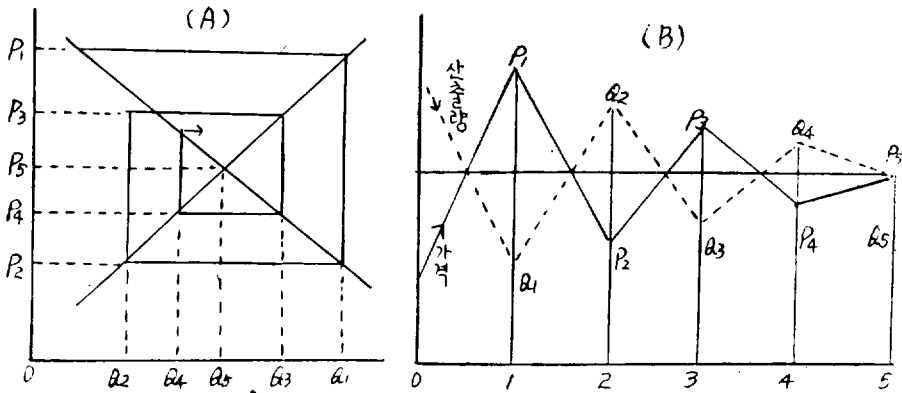
3) Corn-hog cycle이란 需要變動과 供給變動사이에 一期의 時差(time lag)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循環의 一種이다. 즉, 옥수수(Corn)값이 돼지의 飼料 價値로서 廉價일 때에는 農夫는 돼지의 증식을 決定하고 옥수수의 栽培面積을 增할 것이다. 그러나 大多數의 農民이 옥수수를 적게 심고 돼지를 增産했기 때문에 실제로 市場에 공급된 돼지는 그 數가 많아서 價値가 떨어지고 이에 比해 옥수수 價値는 上昇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農夫들이 옥수수의 경작을 늘리고 돼지의 飼育量을 줄였더니 그 다음해에는 옥수수 價値가 떨어지고 돼지의 價値가 相對的으로 上昇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양자사이에 是價格과 生産量에 있어서 순환적으로 波動的인 變動을 나타내고 있다.

4) 거미집 定理(Cobweb theorem)은 1930年 비로써 Henry Schultzy · J. Tinbergen 및 C. Ricci에 의하여 각각 獨立的으로 展開되었고, N. Kaldor · W. Leontiet · N. Buchanan 등에 의하여 漸次 精密히 定式化되었다. 거미집 定理의 成立條件은 다음과 같다.

- ① 價格에 對한 需要의 反應은 即時的이다. $D_A = D(p_t)$
- ② 供給은 前期의 價格에 依存한다. $S_t = S(p_{t-1})$
- ③ 價格은 供給量에 依하여 決定한다. $D(p_t) = S(p_{t-1})$



〈圖 2.〉發散의 變動의 경우



〈圖 3.〉收斂의 變動의 경우

零細하기 때문에 價値의 農業經營者는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農産物을 大量으로 供給할 수가 없다.

다섯째, 農業生産의 季節性은 農産物價格變動을 가져온다. 즉 農業은 자연을 利用하는 同時에 자연의 支配를 받는 産業이다.

여섯째, 農産物의 供給地와 消費地의 遠近을 農産物價格變動의 한 要因을 이루고 있다. 즉 消費地가 供給地와 같은 경우에는 農産物가격변동에 큰 影響을 끼치지 않으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貯藏·保管의 困難性이나 荷役輸送 等の 困難性으로 因하여 價格變動이 惹起된다.

3) 需要의 特殊性

다음에는 需要面에서 본 農産物價格變動의 特殊性

을 보기로 한다.

첫째, 農産物은 供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需要의 彈力性이 적다. 따라서 需要의 彈力性이 적기 때문에 需要의 增減에 의한 農産物價格變動의 變動은 큰 것이다. 例를 들면 공급이 수요를 超過하는 경우에도 수요량이 대폭 증가되지 않으므로 供給과잉이 가 격인하와 이에 따른 需要增大라는 過程은 밝히지 못하고, 價格만을 더욱 低下시켜 生産者인 農民을 困境에 陷入케 할 뿐이다.

둘째, 農産物의 價格變動은 需要側面에 있어서 人口 効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

여기서 말하는 人口 效果란 人口의 變化가 農産物의 需要量增減에 미치는 影響을 말한다.⁵⁾

5) 朱奉圭, 農業經濟理論, 1980, p.128.

셋째, 所得이 달라짐에 따라 農産物의 需要가 增減하고, 이의 結果로서 農産物價格에 影響을 미치는 所得效果 역시 需要側에 있어서 農産物가 격변동에 하나의 要因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所得效果가 價格變動을 招來하는 여러가지 要因中에서 가장 支配的인 要因은 Engel의 法則과 Zimmerman의 法則이라고 할 수 있다.

Engel의 法則에 의하면 家族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總支出中 食糧購入을 爲하여 支別되는 部分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Zimmerman은 食糧을 爲한 所得의 支出變動을 3段階에 걸쳐서 說明하였다.

第一段階에서는 食糧수요의 所得彈力性은 相當히 커서 所得의 變動이 價格變動에 미치는 影響은 클 것이고, 第二段階에서는 所得의 增加가 食糧需要를 增大시키는 비율이 극히 적은 것이며, 공급과잉으로 생기는 價格變動이 問題될 것이며, 第三段階에서는 제2단계보다 더욱 激甚한 食糧供給의 과잉현상이 일어날 것이다.⁶⁾

4. 우리나라의 農産物價格의 問題點

앞에서 본 바와같이 農産物은 價格이 形成되는 過程에서 몇가지의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一般의인 特殊性이 우리나라 農産物價格에서는 어떻게 反映되었으며 앞으로의 農産物價格은 어떻게 形成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1) 農産物價格의 重要性

옛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農産物價格, 특히 米麥을 中心으로 하는 穀價는 언제나 物價政策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담당하여 왔는데, 그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 農産物 특히 米麥은 國民의 食生活에 하루라도 빠질 수 없는 食糧이 되기 때문에 農産物價格의 上昇은 非農家는 물론 食糧의 自給이 不可能한 需細農家의 食生活을 크게 威脅하고 나아가서는 生計費의 上昇을 통하여 賃金 및 餘他物價의 上昇을 先導하고 인플레이션(Inflation)을 激化시킬 憂慮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지난날 米穀을 中心으로 한 穀價의 波動이

政治 및 社會問題로 크게 擴大되었다는 事實과

셋째, 農業은 우리나라 產業構造上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農産物價格政策은 農村經濟의 振興과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있어서 重要한 影響을 끼칠 것이라는 점과

넷째, 農産物價格의 지나친 下落은 農家所得을 減少시키고 農民의 生産意慾을 低下시킬 것이며, 또 農業生産의 增加를 阻害할 뿐 아니라 農家購買力을 低下시킴으로써 工産品의 生産萎縮으로 까지 波及할 것이기 때문이며

다섯째, 農産物의 保管·運搬·管理등을 爲한 諸施設이 充分하게 完備되지 않았으므로 季節的인 價格變動이 심하기 때문이다.

2) 價格形成의 特殊性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農産物이 어떠한 條件下에서 生産되고 供給되었으며 消費되었는가를 밝혀 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適正한 農産物의 價格形成이 可能할 것인가를 摸索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農業은 需細한 耕作規模下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 이러한 需細性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첫째, 生産費의 上昇을 가져오고 收入에 制限을 받는다. 그러나 價格形成에 미치는 經營規模의 需細性이 갖는 重要性은 높은 生産費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需細農은 經濟力의 바탕이 매우 弱하기 때문에 秋收直後 심하게는 秋收以前에 作物의 大部分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要因때문에 農産物價格의 季節的 變動은 收穫에 異狀이 있을 때에는 極度로 加重된다.

둘째, 우리나라 農業은 米作中心이 되어 收入이 限定되어 있다. 즉, 主穀의 作況과 이에 따르는 主穀價格이 農家經濟를 거의 左右하고 全体農産物의 農家經濟와 직결되는 것이며 低穀價政策이 持續될 때 그것은 곧 農家經濟의 破綻을 招來한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셋째, 天候에의 依存도가 큰 農業이므로 農業經營의 安全도가 制限되어 있다. 이 사실은 해마다 農産

6) 農協中央會, 韓國農業의 諸問題, 1970, p. 370.

物價格의 變動을 심하게 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기 때문에 健全한 農業經營을 營위하는데 相當한 威脅을 加하게 된다.

빛째, 農產物의 流通過程에는 많은 中間상인이 介在되어 利益의 大部分을 商人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都賣 또는 小賣段階에서 발생하는 農產物價格上昇의 혜택을 農民들이 充分히 받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諸要因에 의하여 農產物價格形成의 基礎는 심한 價格의 騰落을 피할 수 없는 環境에 處하고 있다.

3) 價格形成의 問題點

최근 몇 년간의 農產物價格變動狀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國內生産의 國際比較優位性與否에도 불구하고 農產物價格이 昂騰하거나 下落한 것은 氣象등의 自然 조건 변화에 의한 生産의 農凶, 과거 여름 동해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豫測不許의 瞬發的인 超過需要發生, 轉換期로 인한 生産적용의 時差性 등에 基因하여 價格振幅이 심하였던 것이다.

過去 1980년까지의 主要 農產物價格變動을 調查하여 보면 많은 品目の 農家販賣實貨價格이 下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農產物은 工產品 生産과는 달리 大部分이 일시에 生産되어 年中 平準化된 需要를 充足시켜야 하는 반면 技術的으로 貯藏과 加工이 어렵기 때문에 價格이 定期的인 季節變動現象을 가지고 있다. 그외에 몇 가지 品目으로부터 우리는 價格의 週期現象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農產物價格은 工產品에서 발견할 수 없는 獨特한 特性과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⁷⁾

4. 結 論

大多數의 國民에 依한 自給自足的 營農形態가 支配的인 段階에서는 增產政策이 가장 큰 課題였다. 그러나 經濟가 發展하여 農業人口가 相對的으로 적어지고 農產物 流通量이 擴大되면서 農產物價格의 重要性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商業的인 農業의 比重이 커짐에 따라 農產物價格의 變動은 바로 農業所得의 增減과 直結되고 있으며, 食品消費의 全量을 市場에 依存하고 있는 消費者의 數가 增加함에 따라 農產物價格의 騰落은 곧 消費者 家計費支出 規模의 幅을 크게 左右하고 있어 이는 곧 政策當局의 깊은 關心事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農產物價格은 工產品에서 發見할 수 없는 獨特한 特性 및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農產物價格의 特性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農民들로서는 지금 農家交易條件이 惡化되고 있어 營農에 不安感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爲해서는 確固한 價格支持政策의 擴大·輸入의 最大限 抑制·需給調節機能의 強化·生産基盤의 擴大造成 및 流通構造의 革新 등이 綜合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러 方面에서 많이 論議되어 온 農產物價格의 適正水準維持策에 對하여 많은 改善方法이 있지만 우선 두가지 改善策을 제시하고 싶다. 즉, 農產物價格의 季節的인 幅을 없애는데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流通部門에서의 損失을 막기 위하여 政府는 農核系統出荷를 積極支援해 주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農協中央會, 韓國農業의 諸問題, 1970.
2. 農漁村開發公司, 市場調查報, 1980.
3. 朴基赫, 農業經濟理論, 1977.
4. 朴東昂, 農業經濟, 1974.
5. 朱奉圭, 農業經濟理論, 1980.]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村經濟, 1980(1).

7) 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1980. 1, p. 3.